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 산·학·연과 함께 100대 핵심과제 만든다!

- 방사청, 「국방반도체 정책 및 과제수요조사 설명회」 개최
- 주요 정책·제도 공유하고 국방반도체 연구개발(R&D) 수요 본격 발굴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9월 3일(목) 판교에서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반도체 정책 및 과제수요조사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2월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반도체법’) 시행을 앞두고 국방반도체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를 산·학·연과 공유하고, 향후 기술개발을 이끌어갈 ‘100대 국방반도체 핵심과제’ 선정을 위해 현장의 기술수요를 폭넓게 발굴하고자 마련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국방반도체법 제정에 따라, 국방 특화 반도체 연구개발(R&D), 전문사업자 지정, 신뢰성시험·인증체계 등 국방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 반도체 설계 전문(팹리스) 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국방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명회는 1부 ‘주요정책’과 2부 ‘과제수요조사’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먼저 1부에서는 방위사업청이 정책 추진방향과 국방반도체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은 각각 중점 추진업무와 신뢰성 시험·인증 방안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국방반도체 연구개발(R&D) 추진방향과 과제수요조사 절차 및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산·학·연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참여와 국방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제시 및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윤창문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우리나라가 보유한 반도체 산업의 기술력과 산·학·연의 역량을 국방 분야에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무기체계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산·학·연으로부터 제안받은 반도체 기술과제에 대해 전략적 중요성,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 국내 개발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말까지 100대 국방반도체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방반도체 정책이 단순히 연구개발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내 생태계 조성 및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력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산업 역량을 국방분야로 확산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

담당 부서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	책임자	국(부) 장	윤창문 (02-2079-4260)
		담당자	과(팀) 장	노용준 (02-2079-4550)